

국정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혁신적 포용국가’ 국가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및 포용성장·혁신인재 양성 등을 올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에 대해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긍정평가하고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한반도 비핵화 입장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8일 특별열차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간 입장을 조율하고 북중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양국 정상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대미관계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국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42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국리민복 기초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해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2019년 새해에도 한반도는 나라 안팎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오랜 역사를 통해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다. 기해년 또한 전 국민의 일치단결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한 해이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여러가지 정책적 현안과 계층·정파간 갈등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국외적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정세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질적으로 계층·세대·정파간 생각과 가치는 각 개인과 집단의 살아온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랫동안 직·간접적인 경험과 시간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에 좁혀질 간격이 좁혀지기 어렵다.

서로간의 차이가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해주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상호간 거리를 좁혀야만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존의 삶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것의 실천과 수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의 모습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 가운데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는 국민 전체의 인심이 나빠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눈에 띄는 적색

신호등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정책적 대안의 시행이나 추진으로 인한 생각의 차이가 현실적인 국민경제의 문제로 연결될 때 우려는 더욱 크게 될지도 모른다.

대외적으로는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

양보와 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공존의 터 만들어야

새해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

관계, 한일간 과거사 갈등, 미국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변화 등 외부환경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익창출을 목표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자유총연맹

의 ‘국리민복’이라는 목표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이라는 대의명분과 국민의 평화롭고 복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부단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새해의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계층별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어 각 구성 단위별로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람의 온기’가 되살아나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2019년의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게 전개되어도 우리 국민은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밑바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